

제38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특허청은 지난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제3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발명진흥과 특허기술 개발에 기여한 80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하동만 특허청장, 박광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정태련 대한변리사회 회장 및 각계 발명 관계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념식에서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한일시멘트 정환진 사장과 LG전자 전시문 상무가 차지했다.


또 은탑산업훈장에는 인트로팩 이결주 대표와 한국학교발명협회 김두선 회장에게 돌아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며,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취약하고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천 및 핵심특허를 확대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 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갈수록 기술수명은 줄어드는데 반해 우리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23개월인 심사 대기기간을 오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하겠다"며 "그 추진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렵게 취득한 특허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허분쟁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발명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발명과 과학기술은 경제의 활로이자 내일의 희망"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 외의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탑산업훈장	코코실버 안정오(安正五) 대표이사 성용하이테크 이한중(李漢重)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남양매직 안영남(安永男) 대표 동아에스텍 한상원(韓相源)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LG필립스디스플레이 한수덕(韓洙德) 상무 보고엔지니어링 임성기(林成基) 대표이사
산업포장	대산압연 유병섭(柳炳燮) 대표 삼성전자 정종삼(鄭鍾三) 수석연구원 유니크 안정구(安定求) 대표이사 예건산업 노영일(魯英一) 대표이사 살롬산업 김정매(金正梅)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삼우개발 정주섭대표 한국디엔에스 강희영 과장 신한정밀전자 전석락 대표이사 아이에스디지털 김정신 대표이사 서울한산중학교 김병오 교사 인하대학교(단체)
국무총리표창	(주)스틸코리아 박대열 대표이사 (주)청풍 최윤경 대표이사 (주)하영그린 하현영 대표이사 한국화학연구원 박수진 책임연구원 맥섬석 지.웬(주) 광성근 충북대학교 이상일 교수 재원산업(주) (단체)

노무현 대통령 「발명의 날」 기념식 치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발명 관계자 여러분,

제38회 [발명의 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창의력과 열정으로 新기술개발에 정진하고 계시는 발명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발명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독서대'를 개발해서 실용신안을 낸 일이 있고, '노하우 2000'이란 정치업무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남다른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입니다.

생산라인 하나 없이도 기술 판매만으로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발명인 여러분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발명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 요소는 결국 사람입니다. 재력이나 학력, 나이나 성별과도 상관 없습니다. 뜻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국

토와 빈약한 자원에 비해 고급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발명과 과학기술은 경제의 활로이자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의력과 신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쌓아온 지적 전통이 있습니다.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금속활자의 발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선두권으로 도약한 IT산업과 정보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허 출원 건수에서 국내 특허 세계 4위, 국제특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이 작년 말 처음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지만,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취약합니다. 기술 무역수지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천특허·핵심특허를 더욱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강국, 특허대국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특허심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갈수록 기술수명

은 줄어드는데 반해 우리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월인 대기기간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특허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자본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의 특허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분쟁 관련제도를 개선해서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을 최대한 보호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지방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도 더욱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낡은 것에 안주하려는 타성 속에

서는 창조적 에너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고정관념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창의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발명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 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여러분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끄는 첨병입니다. 발명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후원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과 발명이 21세기 우리의 국운을 좌우합니다. 모방기술만 가지고는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천재 발명가에게만 의존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창의적인 다수가 지식 창출의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부는 땀흘려 이룩한 성과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발명과 창조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력 있는 경제, 창의력이 샘솟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뜻깊은 「발명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발명인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5월 19일부터 실시

특허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특허청 훈령 제371호

제정 2003. 5. 15

특허청은 「특허청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특허청 훈령으로 제정되어 03.5.19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보장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소명을 거쳐 거부할 수 있고,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회피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이권개입 행위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업무와 관련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관련공무원간의 식사대접은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고 받도록 제한하였으며, 일정 회수 이상의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넷째,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와 징계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행동강령의 내용들이 공무원의 '행위준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 특허청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판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특허심판원(원장 정양섭(鄭禳燮))은 지난 5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KIPS)에서 개원 5주년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원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특허법원과 함께 '98년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립된 독립행정심판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변리업계, 지식재산법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1998년 3월 1일 개원 이후의 특허심판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함과 아울러 특허쟁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특허심판원장의 개회사와 특허청장(河東萬)의 축사에 이어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종전의 특허청 심판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허심판원 발족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던 김태운 변리사의 『특허심판원 5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서 최정렬 특허법원 판사, 김정중 LG전자 부장, 김병진 변리사, 유영기 심판장 등이 지난 5년 동안 특허심판원의 잘한 점·못한 점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가 『특허쟁송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재산권 심판·소송과 관련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 기술판사의 도입,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해 토론자인 강기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승문 변호사, 이인정 삼성전자 부장, 김성기 변리사, 전상우 심판장의 토론이 있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문제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공약 사항으로서 현재 국회의원 120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개원5주년 기념 세미나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논의결과를 심판원의 발전에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정하며 신속한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특허정보분석 매뉴얼 발간

특허청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전략적 수행을 위해 특허정보의 활용 및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과학기술활동 측정을 위한 특허정보의 분석·활용 매뉴얼과 국가간 기술 비교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에 관한 매뉴얼을 번역·합본한 [특허정보 분석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과학기술활동의 투자, 인력, 예산 등의 데이터를 수집, 측정, 활용하기 위한 OECD의 여러 매뉴얼 중에서 연구개발 성과 측정을 위한 매뉴얼에 해당됩니다.

특허 관련 통계 등 특허정보를 경제 분석, R&D 및 혁신 지표로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간·기관간 차이점, 기술 및 경제 분야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매뉴얼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과학기술지표로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제2부 국가간 기술성과 비교를 위한 특허건수의 활용
제1장 배경 및 개념들	제1장 서론
제2장 특허법 제도	제2장 통계 데이터 원천으로서의 특허
제3장 특허문서에서 최신기술 정보까지	제3장 장소, 시간, 국가, 일자별 특허분류
제4장 과학기술 및 경제분석에서의 특허지표	제4장 특허 패밀리
맺음말 (*부록제외)	제5장 결론

[원 문]

본 자료의 원문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제1부 과학기술지표로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Patent Manual" 1994

<http://www.oecd.org/pdf/M000014000/M00014548.pdf>

- 제2부 국가간 기술 성과 비교를 위한 특허건수의 활용

"Using Patent Count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of Technology Output" STI Review No.27 (Volume 2000 No.2) pp.130~146.

<http://www.sourceoecd.org>

특허청,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시행 - 2003. 6. 10일부터 -


특허청은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등이 출원접수단계에서 출원절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를 6월 10일부터 운영한다.

특허청의 특허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 차원의 종합마련대책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 과제 중에 포함된 이번 후견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란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중 출원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대리인을 통한 출원인은 제외)이 출원 사전절차, 출원상담,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 출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민원실(서울사무소 포함) 전문 상담관 및 특허고객콜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출원절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자문, 상담 및 출원 절차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안내해 주는 출원인 상담지원 제도를 말한다.

후견인은 종합민원실(대전) 전문상담관, 출원안내 전담직원 등 특허·실용신안 담당 1명과 의장·상표 1명, 출원안내 전담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서울 사무소는 대전 본청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 운영된다.

또한 비방문 출원인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콜센터의 기 운영중인 전담상담원 7명을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으로 병행 지정하여 활용하게 된다.

이번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시행으로 그동안 출원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출원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하여 맞춤형 원스톱(One-Stop) 출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실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실질적 구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 이용안내

■ 방문민원인

-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중 출원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원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종합민원실(서울사무소 포함)을 방문하시어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출원절차 진행상의 출원 사전절차, 출원상담, 출원검색,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 모든 과정에 대하여 일체의 자문, 상담 및 출원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출원인

-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에 전화(전국 어디서나 1544-8080(발명발명))하시면 됩니다.
- 특허고객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으로 지정된 담당 전담상담원이 출원절차 진행상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실시로 다음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 사전절차(출원인 코드 신청, 전자문서 이용 신고 등) 출원상담, 출원검색,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 출원과정 전반에 관하여 일체의 자문, 상담 및 출원절차 등을 안내
- 인터넷 출원인의 경우에도 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Mr.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으로 재선출

2003. 5. 27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WIPO 임시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은 수단 출신의 Mr. Kamil Idris 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만장일치로 임기 6년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재선출하였다.

Mr. K. Idris 현사무총장은 지난 6년의 임기(97. 12 03. 11)동안 결과중심의 사업예산 도입 등으로 WIPO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 전개로 지식재산 분야 UN전문기구로서의 WIPO 위상을 공고히 한 점이 주요

업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임기간중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재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Mr. K. Idris WIPO 사무총장의 새로운 임기는 오는 2003. 12. 1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서기관 서울수, 전화 042-481-5072



Dr.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

WIPO 사무총장 약력

- 공식 직함 : Director General (1997. 11월 선임)
- 성 명 : Dr. Kamil Idris
- 국 적 : Sudan
- 학 력 :
 - BA, Philosoph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 Theories University of Cario (이집트)
 - MA,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Ohio (미국)
 - Ph.D., International Law,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Geneva (스위스)
- 주요 경력 :
 - 1997~현재 : WIPO 사무총장
 - 1994~1997 : WIPO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 1985~1994 : WIPO Dir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ternal Relations Bureau (in charge of Arab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1982~1985 : WIPO Senior Program Offic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ternal Relations of Africa
 - 1979~1982 : 스위스주재 수단 부영사(Vice-Consul of Sudan in Switzerland)
 - 1976 : 카이로대 강사(Lecturer, University of Cairo)